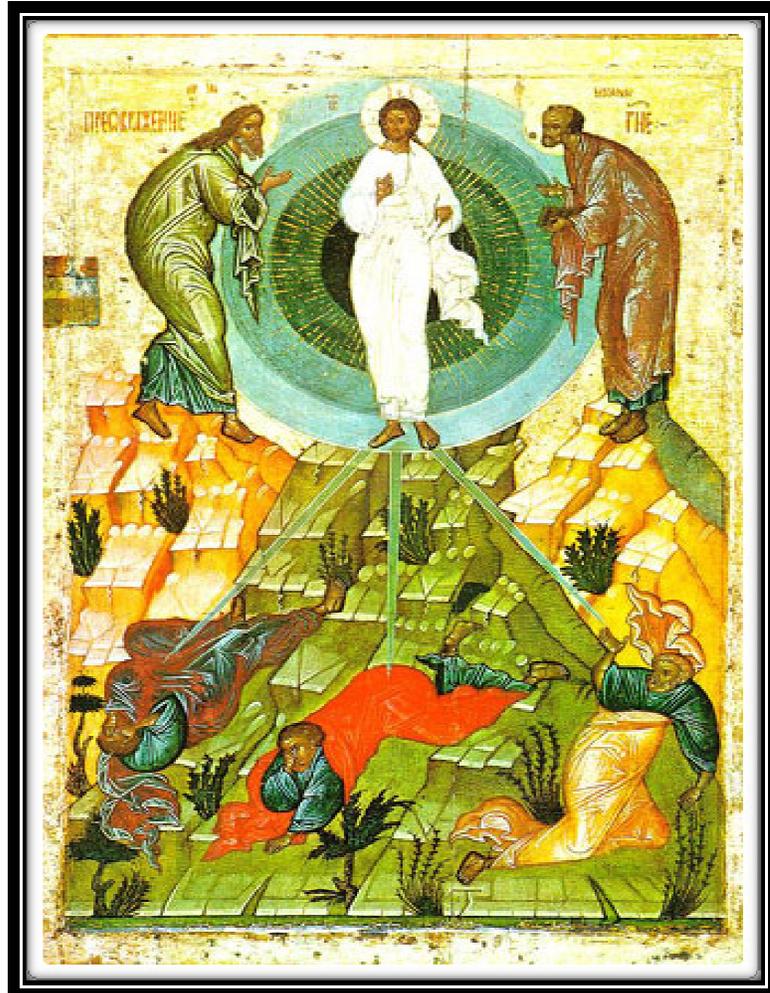


2015 3.01 사순 제 2 주일

제 1 독서 : 창세기 22,1-2.9 10-13.15-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

제 2 독서 : 로마 8,31 33-34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복 음 : 마르코 9,2-10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노브고로트 화파 작, (15세기)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모를 보고 놀란 상태에서 있을때에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들어라” 라는 소리는 네 생각을 버리고, 네 느낌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어라” 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읽노라면 자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라.”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서, 내 느낌에 맞춰서 들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벌써 하느님의 뜻으로 듣는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들으면 나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정마다 책을 한 권씩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은 초반 30-60 페이지 까지는 좀 지루 합니다. 저 자신도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시면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성인들에 대한 프란치스코, 토마스 모어, 마더 데레사, 그리고 요한 바오로 2 세 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책을 완독을 하시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저의 강론이 마음에 와 닿으실 것입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주일미사 강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어 읽어보십시오. 오늘 들으셨던 강론이 다시 읽으실 때에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말이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1 독서를 보면,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자기자식을 하느님께 바치라고 해서 바칠수 있는가? 어떤 정신 나간 자식이 아무리 효도 한다고 해서 자기를 죽일 장작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묶는데 묶으라고 놓아줍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기아버지에게 묶여서 죽음을 당할 준비 만이라도 할수 있겠는가? 아니면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느님께 바칠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생각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명과 실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시면 같은 얘기가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도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어머니,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신부들의 부모님들, 당신 자식들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청소부도 될수 있고, 식당 주인도 될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런 자식들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또 그 뜻에 순명한 수만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자신과, 외로움과 고통과 싸우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듣고 순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자나 성직자들이, 우리 천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수도자나 성직자들이 다 자기가 가질수 있는 가정과 자식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느님께 송두리째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았았습니다. 왜냐? 성직자나 수도자들을 볼때에 외면적으로 멋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형제 자매님들

과 똑같은 약자들입니다. 갖고 싶은 것 있고, 먹고 싶은 것 있고, 하고 싶은 것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요. 그 분이 갖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시골 산골 깊은 곳에 초가삼간 지어, 사랑하는님과 함께 알콩달콩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이야기를 머나먼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현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중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의 매일 8시간에서 12시간을 직장이나 아니면 가게에서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학교를 적어도 일주일에 다섯번은 다니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교습이다 뭐다 뭐다 하면서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십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이 세상에서 배워 살아 갈 것인가? 그렇게 애 쓰십니까? 결국 다 자기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어, 뭐가 됐어.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무슨 직위를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집과 차와 직위가 몇년이나 갈 것입니까? 길어야 백년, 의학이 발달되어 백년을 좀더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짐이 되는거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세상에 짐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생각할때에,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물질적인 사고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고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자식들한테 그 바라는 것을 바랄만큼, 그 만큼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했습니다! 하실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해 주었다고.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안해 주셨어요. 내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 힘을 안 키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힘으로 자랐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대고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 해 주었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학비 대주고 키워 주었던건만, 저놈들 나한테 하는 저 꼴 좀 보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성당 견진반의 피정이 2박3일입니다. 처음입니다. 항상 하루 때우는 식으로 하곤 하였는데 2박3일을 계획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신자, 일부 부모님들이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무얼 2박3일 썩이나 피정을 하느냐? 다른데는 네시간이면 되는데..... 교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시간, 여기오면 두시간이 없어집니다. 성당은 일주일에 한번 나오면 그것으로 흡족하다고, 학교는 으레히 일주일에 다섯번을 보내고, 그 외에도 운동이고, 취미고, 열심히 보내는데 ... **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성당엘 보내기가 왜 그렇게 힘이 됩니까? 하루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거라고

우리는 이세상에서 쓸것, 우리가 서른, 대개 스물 다섯에서 서른살 정도 되면 직업을 갖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십년이상 투자를 합니다. 몇년 살기 위해서? 사오십년 살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세상 오십년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십년 이상을 투자를 하는것이라면, 영원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의 강론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 내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내 목적은 최소한의 것만 하고 카톨릭 신자라고 불리어지고 싶고, 최소한의 것만 하고도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저 신부는 아니래! 그러면 저의 강론이 불편한것이지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거의 칠일을 바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과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투자 하는가? 이 미사중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봅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탕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2,1-2.9 ~.10-13.15-18

그 무렵 1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9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엮어 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11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12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15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16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17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18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16(115),10 과 15.16-17.18-19 ㄱㄴ(◎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 ㄴ-34

형제 여러분, 31 하느님께서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10

그 무렵 2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3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5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7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8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